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 필요”

전북체육회 등 도내 체육계도 정부에 촉구

전북 체육계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31일 전북체육회 임직원과 종목단체 관계자 등 전북 체육인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를 위한 전북 체육인 결의대회를 열고 국제공항 조 기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제사업인 새만금 개발 촉진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며 "더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투자유치와 산업·관광

국제협력도시로서 항공수요에 조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30여년간 200만 전북도민에게 실망과 허탈감을 줬던 새만금 개발사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되는 등 속도감 있는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침체 돼 있는 전북 경제를 살리고 전북도민들의 염원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조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북 체육인들은 새만금 국제

공항이아말로 전북 체육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줄 대안이라고 피력했다.

전북 체육인들은 "전북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태권도 성지가 위치하고 있고 매년 전세계에서 약 3만명의 선수와 지도자 등이 방문하고 있다"며 "또한 전라북도가 야심차게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2022 제2회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70개국 1만 5000여명 참가를 예상하고 있어 국제공항이아말로 체육인들의 긍지를 살리고 성공적인 대회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군다나 2023년 세계 챔피언십 대회는 특별법 통과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 중에 있는 데 여기에는 169

개국 4만여명의 해외 청소년들이 참가한다"며 "이후 항구적인 아영지로 조성, 매년 2만여명의 청소년들과 가족들의 방문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의 필수 이동수단인 국제공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체육을 통해 전북이 세계 체육의 메카로 비상할 수 있게,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조기 추진을 거듭 요청한다"며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국가경쟁력 확보, 침체된 전북의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대응적 차원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가 반드시 면제 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해 12월 31일 전북체육회 임직원과 종목단체 관계자 등 전북 체육인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를 위한 전북 체육인 결의대회를 열고 국제공항 조기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도내 SW기업 품질향상 도움

SW품질역량강화사업이 전북지역 IT/SW기업의 품질향상에 보탬이 되고 있다.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서문산성)은 2018년 한 해 동안 지역 SW품질역량강화사업을 통해 △SW품질 컨설팅 12건 △테스팅 지원 20건 △인증지원 8건의 성과를 기록하며 지역SW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켰다고 31일 밝혔다.

진흥원은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기업의 개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데 앞장서왔다. 또, 품질기술 교육과 품질인식 확산 세미나를 통해 개발자들과 관련 기업인들의 품질에 대한 인식 향상을 하는데 힘써왔다.

대표적으로 (주)아이티시어션은 이 사업을 통해 GS인증과 CE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자사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충남도청과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올해 6개 과정으로 운영된 진흥원의 품질기술교육에는 104명이 수료했으며, 품질인식 확산 세미나와 공과 개발자 커뮤니티 운영 등을 통해 IT/SW기업 관계자들의 인식 개선과 개발자들 간의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도 제공했다.

/송효철 기자

정신과 진료받던 30대 환자 흉기로 의사 찢러 살해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의사를 흉기로 찢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로경찰서에 따르면 박모씨(30)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경 의사 A모씨(47)에게 외래 진료를 받다가 A모씨를 흉기로 수차례 찢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체포돼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박모씨는 진료를 받던 중 흉기를 휘둘렀고, 놀라서 도망치던 A모씨가 복도에서 넘어졌다.

그는 A모씨를 뒤 쫓아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찢른 것으로 드러났다. A모씨는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수술에 들어갔으나 흉부를 크게 다쳐 오후 7시30분 경 숨졌다.

간호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박모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강석훈 기자

올해 전주발전 이끌 대형 국가사업 본격화

시, 탄소 국가산단 조성 전주역사 전면 개선 등

2019년 새해에는 전주탄소산단단지 조성사업과 전주역사 전면개선,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등 대형 사업들이 본격화된다.

이들 사업들은 해묵은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원천이 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주시는 희망찬 2019년 황금패지 해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주발전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탄소소재 국가산단단지 조성사업은 최근 확정된 내년도 국가예산에서 당초 예상(500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총 1220억원이 확보되면서 조기 완공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예산이 확보된 만큼 편입용지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시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에는 현재 약 130여개 기업이 입주하면서 제철 산재로, 오는 2022년 완공되면 탄소기반소재부터 최첨단 항공부품 생산까지를 아우르는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해 6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3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또한, 전주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신산업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총 국비 90억원)도 올해 본격화되면서 탄소·드론, ICT산업 등 성장동력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전략적인 육성과 시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시는 새해들어 중소기업 창업도시 조성과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향후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수요를 충족시키는 등 전북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할 전북중소기업 연수원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향후, 연수원이 건립되면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이 신사업 진출 시 요구되는 탄소·농생명 등 맞춤형 융복합산업 인력양성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드론축구 중추도시인 전주시는 △드론산업 허브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국비 2억원) △드론국제박람회 개최(국비 3억원) 등을 추진함으로써 2025년 세계 드론월드컵 개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드론제조업과 유통산업 발전도 이끌 계획이다.

새해에는 해묵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형 사업들도 본격화된다.

전주역사 전면개선사업의 경우, 오는 2022년까지 총 450억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새해에는 총 15억원의 국비가 확보돼 본격적인 설계에 돌입한다.

또, 남부권 발전으로 인해 시가지화된 전주교도소를 이전하기 위한 사업도 설계와 용지보상을 거쳐 속도를 낸다.

특히,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의 경우, 전주국제영화제가 기해년 새해 성년(20회)을 맞이하는 가운데 39억 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면서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와 토지보상, 기본 및 실시설계에 돌입하게 된다.

오는 2022년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그간 별도의 전용관이 없었던 전주 국제영화제의 전용상영관이자 세계적인 독립영화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새해 들어 현 전주지방법원·검찰청 부지에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전용역도 추진, 전주 구도심 아시아문화상점터 100만평 프로젝트와 함께 전주형 문화경제를 이끌어 가는 덕진 뮤지엄밸리 조성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4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추진되면 법원·검찰청 이전 이후 주변지역의 슬럼화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도약을 위한 디딤발을 내걸어온 전주시가 2019년 기해년 황금패지해를 맞아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기 위한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새해에는 가까운 시민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삶의 터전을 개선하는 데서부터, 전주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이자 활기찬 일자리 도시로 만드는 일,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기 위해 준비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챙겨 탄탄하고 흔들림 없는 도시 기반을 닦도록 노력하겠다. 전주 특례시로 더 단대한 전주의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전자담배 흡진 20대 검거

음식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에 전자담배를 흡진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피의자 A모씨(25)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00시 23분경 B맥주 군산대점에서 피해자 C모씨(24)가 술을 먹는 사이 시가 25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절취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7시 20분경 A모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도민 대상 부분일식 공개관찰

전북과학교육원(원장 김영찬)에서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부분일식 공개관찰 행사를 6일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달이 해를 가리는 일식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가능하다. 지구에 달의 그림자가 비치면 그 그림자 속으로 익산지역이 자전해 이동함으로써 일식이 생긴다. 일식이 생기는 시각은 익산기준 6일 오전 8시 36분에 시작해서 11시 3분에 끝나며, 달이 태양

의 일부만 가리므로 부분일식으로 나타난다. 특히하게도 2019년 12월 26일에도 일식이 일어난다. 다음 일식은 55년 후인 2074년 1월 27일과 7월 24일에 일어날 예정이다.

전북과학교육원에서는 6일 오전 관람객 모두에게 일식 체험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약가족 40명은 전자체험관 4층에서 일식체험기 공작과 부분일식을 체험하고, 일반관람객은 야외 부스에서 일식관찰기구를 활용해 부분 일식을 관찰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나는 자랑스러운 전주사람”

시, 시상식 개최... 자활사업 활성화 등 공로 인정

전주시가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씬 없이 달려왔던 2018년 무술년 한 해를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시청 강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400여명과 유공시민 100여명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자랑스런 전주사람 시상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품격 높은 연극 공연을 통해 전주시립극단의 발전과 문화도시 전주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이슬원 전주시립극단 무대감독의 퇴임 공로패 수여를 시작으로 여러 분야에서 전주의 이름을 빛낸 유공시민들과 헌신적인 업무처리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전주시민을 대표해 올해의 자랑스런 전주사람으로 선정된 시민들은 △자활사업활성화 △제1회 사회혁신

한마당 등 각종행사 성공개최 △드론산업 발전 △공동체활성화 △자전거이문화 조성 △교통선진질서확립 △문화예술발전 △차 없는 사람의 거리 활성화 등 여러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시는 평소 재난대비태세 확립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대통령 표창을 안전주관부서인 시민안전담당관실에 전수했다.

또한, 이날 시상식에서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주민주도 도시재생 모델 발굴로 주민·지역주도 전주형 도시재생 실현에 기여한 공로로 신중수 도시재생기획팀장이 정부 모범공무원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수여됐다.

/송효철 기자

“학생자치활동 예산 반드시 편성”

김승환 교육감 “권고에서 의무사항으로... 위반시 징계사유”

전북지역 모든 학교는 올해부터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보장하는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동안 학교 기본운영비 중에 최소 1%는 학생회비로 편성할 것을 권고해왔는데 이제부터는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 사항이다”고 말했다.

전유이 추후 감사에서 학생회비 의무 편성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권고기간을 충분히 뒤와고, 앞으로는 '징계사유'가 될 것”이라면서 “관련사항을 교육계획설명회에서 철저히 설명하라”고 담당부서

에 주문했다.

전북교육청은 '학생자치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를 학교회계 재정운용방향과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포함하고, 예산실명회를 통해 안내해왔다.

학생회·학급회 등의 자치활동 권리와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 관련 정책 참여를 보장, 민주적이고 학생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내년부터 모든 혁신학교는 교육감 직권 자율학교로 지정·운영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급수 감축에 있어서 공·사립학교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시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네팔 기술혁신 위한 인프라 구축 나서

전북대학교가 네팔 기술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교육에 나선다. 최근 코이카가 주관하는 '네팔 통합적 지역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사업 사업관리운영(PMC)'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전북대는 코이카로부터 20억 원의 지원을 받아 4년 간 다양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대는 그간 네팔에 다양한 민간 차원의 지원을 해왔던 이규재 교수(환경생태 생명공학부)와 김승운 교수(상대경영화과)가 책임을 맡아 네팔 교육부와 카트만두대학교 등과 협력해 기술 혁신센터를 건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사업도 병행한다.

우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네팔에

전문가를 파견해 현황을 분석하고, 센터 건립과 운영, 성과관리 계획 등을 세워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

또한 기술혁신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조직 설립을 위한 현지 자문 활동과 운영 조직의 실무 교육도 시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걸쳐 조직이 신설되고, 운영이 안정화되면 '기술혁신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보완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 시범사업은 '공모형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의 형태로 추진되며, 20만 불 한도에서 총 5~7개 과제를 선정해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사립학교 시설담당자 내진 관련 교육 실시

전북교육청은 3일 사립 중·고·특수 학교 시설담당자 150명을 대상으로 내진관련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지진으로 학교 시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시설 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내진담당자(시설직)가 내진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는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추진해 본 경험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시설담당자를 대상으로 내진관련 법규 및 용역 집행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켜 사업의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시설담당자 교육을 통해 내진관련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 기부자 명단

<정읍> 상고동 3500000
<완주> 봉동읍 봉강마을 200000
<부안> 주산면 도성마을 153000 주산면 장동마을 108000 주산면 종산마을 304000 주산면 중계마을 99000

(1월 2일자)